

2024년 5월 5일. 5 May 2024  
금문교회 어린이주일예배. GGPC Children's Sunday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1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교회 안팎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이 은혜와 사랑, 행복과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새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고린도전서 11:23-2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All Might Become Such As I Am!

사도행전 Acts 26:24-32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And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in his defense, Festus said with a loud voice, "Paul, you are out of your min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out of your mind."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But Paul said, "I am not out of my mind, most excellent Festus, but I am speaking true and rational words.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For the king knows about these things, and to him I speak boldly. For I am persuaded that none of these things has escaped his notice, for this has not been done in a corner.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King Agrippa, do you believe the prophets? I know that you believe."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And Agrippa said to Paul, "In a short time would you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And Paul said, "Whether short or long, I would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except for these chains."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Then the king rose, and the governor and Bernice and those who were sitting with them.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And when they had withdrawn, they said to one another, "This man is doing nothing to deserve death or imprisonment."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And Agrippa said to Festus, "This man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오늘은 2024년 어린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보내신 것은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잘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세대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잘못하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들은 미워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노릇을 잘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앞서 사도행전 26:1-23을 통해, 보통 유대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그 자신이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변화시키신 것을 말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네가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거기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 받으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배우지 말라!” 그런다고 해도, 자녀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자녀는 부모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배우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랬던 그대로, 우리 부모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본 받으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본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And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in his defense, Festus said with a loud voice, “Paul, you are out of your min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out of your mind.”

바울이 변명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어!

베스도는 1.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 그 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But Paul said, “I am not out of my mind, most excellent Festus, but I am speaking true and rational words.

그러나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이쯤해서 바울은, 자기가 정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For the king knows about these things, and to him I speak boldly. For I am persuaded that none of these things has escaped his notice, for this has not been done in a corner.

왕께서는!

바울은 베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고, 아그립바 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parresiazomai, boldly)는 이미 사도행전 4:29에 사용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And now, Lord, look upon their threats and grant to your servants to continue to speak your word with all boldness.  
사도행전 Acts 4:29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견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친 사건 이후, 복음을 전파하다가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 성령이 충만하여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합심기도 드리는 중에 난 말입니다.

이 기도 후에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충만하여, “담대히”(행 4:31)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증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과연 그대로 기도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to him I speak boldly!  
사도행전 Acts 26:26b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바울은 그의 연설이 “변명”(defense, apology)에서 “선교적 선포”(missionary speech)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두매인으로서 유대인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온 세상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상식”이 되어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식 수준의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은혜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발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게 이상한 일이겠지요!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King Agrippa, do you believe the prophets? I know that you believe.”

아그립바 왕이여!

바울은 다시 왕을 불러 세웁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 말은 곧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멘신앙”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심중에는 “하늘로부터”라는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라면, 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가 전파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성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언자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셈입니다.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And Agrippa said to Paul, “In a short time would you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내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이런 말인데. 그것도 요런 한두 마디 말로써!

이 말의 함축은, 1. 내가 이 몇 마디 말로써 나를 설득하여, 2.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말하자면, 어림도 없다! 그런 뜻이지요.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And Paul said, “Whether short or long, I would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except for these chains.”

바울이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문제는 말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가 아닙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만 아니라,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말은 그가 손발이 묶인 상태가 누구에게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추천할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밖에 모든 것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자 자신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I wish that all were as I myself am!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7:7a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독신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 표현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실시했던 연설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n all things I have shown you that by working hard in this way,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사도행전 Acts 20:35

바울은 믿는 자나(밀레도 장로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나(아그립바 왕), 모두에게 한결같이 자신을 "모본"(model)으로 제시하며, "나와 같이"를 주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I would to God that!

이것은 차라리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담대함.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바탕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변명의 자리에서, 바울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더욱이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한 그 자리, 그 시점에도!

하나님이시여!

아그립바 왕을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시편 23:1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시편 Psalm 23:4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Then the king rose, and the governor and Bernice and those who were sitting with them.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보십시오. 이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보통 말로 대화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더 듣는다고 해도, 그가 할 말은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면 계속, 내내,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것입니다.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And when they had withdrawn, they said to one another, "This man is doing nothing to deserve death or imprisonment."

그들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보십시오.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는 도리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다들 교회 간다고 열외하는 자들을 눈치를 주며 괴롭히는 군대에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재는 예수쟁이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교회 보내버리고 말자!

다만, 신앙생활 하는 외에, 일상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핍박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종"(someone weird)으로 "격리"(separated) 된 그 핍박이. 언제든지 "희생양"(sacrifice)이 필요할 때마다 거론되는, 그리고 실제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존재. 세상에서 "오식활자"(誤植活字, typography, misprint)처럼 부정 인식된 그 존재 자체로써!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And Agrippa said to Festus, "This man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법을 따르면 바울은 "실수"한 것입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일을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가이사에서 무죄로 풀려나고 말 일을, 로마까지 가는 죄수신분이 되도록 스스로 자처한 셈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오히려 무죄방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코 "사회-정치적 수사법" 효과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 본문, 즉 사도행전 23:11 해석 등을 포함하여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실제로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기를, 지금 로마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거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사생관(死生觀, death-life perspective)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As it is my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at all ashamed, but that with full courage now a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빌립보서 Philippians 1:20-21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죽어서 잃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0:31

그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가 살 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합니다.

돌쩌귀(hinge)가 있습니다. 문짝을 기둥에 매다는 영어로 "힌지"(hinge)는 다 품어내지 못하는 뜻입니다. 시골 사립문을 밀고 당길 때, 문짝의 안쪽 기둥이 땅에 닿는데, 그 바닥에 돌을 쪼아 만든 움푹 패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문 안쪽 기둥은 그 돌쩌귀 위에 올려져서, 그 위에서 도는 것입니다. 문짝이 벽이나 담장 기둥에 매인 것은 자세만 잡아줄 뿐입니다. 회전축은 돌쩌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이 회전할 때 그 기준을 제공하는 기구를 "돌쩌귀"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삶도 죽음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회전축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신명기는 세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a]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6 And these words that I command you today shall be on your heart. 7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and when you walk by the way, an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8 You shall bind them as a sign on your hand,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your eyes. 9 You shall write them on the doorposts of your house and on your gates.

신명기 6:4-9

오늘 바울의 최후 변명에서 드러난 뜻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and exhort, with complete patience and teaching!

디모데후서 2 Timothy 3:2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1

만일, 모든 좋은 말을 다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빠진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남은 구원하지만, 결국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But I discipline my body and keep it under control, lest after preaching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9:28

좋은 말을 하기로 하자면, 요새는 Chat-GPT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빠진 정보나 자료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그런 말로써는 남을 구원하기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새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 자신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립시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facing plenty and hunger, abundance and need!

빌립보서 Philippians 4:12b

이런 비결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부러 "보라!" 할 때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의 말입니다.

나는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전도에도, 가정교육에도 절대로 유익한 비결입니다.

다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수치가 부끄러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돌쩌귀로 삼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부끄러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사울을 불러 세워 선교자 바울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써 죄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저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을 본보기로 보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도  
부모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